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산업용지 100% 분양 완료



담양군은 지난 27일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이하 에코산단) 산업시설용지가 전부 분양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읍 삼만리·금성면 원천리 일원 조성...환경오염 적은 업종만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에코담양산단은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담양군, 한국투자증권, 현대엔지니어링 등 6개사가 출자해 개발했으며, 2014년 착공해 4년간의 조성공사를 거쳐 2017년 12월 준공 후 본격적인 기업유치에 돌입했다. 2019년 말까지 분양실적이 60%대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추가 등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으며, 사업시행사인 담양그린개발(주)와 함께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업

용지 100% 분양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에코산단은 규모 58만㎡의 산업단지로서 현재 자동차부품, 금속 및 식품가공업체 등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만을 유치해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는 물론, 타 산업단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입주업체들의 근로 환경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75개 기업이 입주했고 앞으로 2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2-3년 안에는 100개 업체가 본격 가동,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굳은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에코산단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양기업의 입주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 시 애로 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대학진학축하금’ 나주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나주시가 내달부터 도내 최초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나주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대학교 신입생 가정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진학축하금은 대학 입학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축하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6월 중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나주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해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다. 단,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이상이 나주시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부모·배우자·자녀가 모두 없거나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의 경우 신입생

본인이 나주시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지원 신청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 본인의 부, 모, 배우자, 자녀가 할 수 있다.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졸 졸업증명서·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등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귀농 노하우 배우고 돈도 받고”

5개월 간 최대 연수생에 월 80만원·선도농 월 40만원 지급



지난 26일 곡성군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관에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대상자로 선정된 선도농과 귀농인 각 12명이 참석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선도농이 영농기술을 전수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계별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교육 연수생(멘티)은 곡성군으로 전입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또는 소정의 영농교육을 이

수하고 전입신고를 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교육 이수시간 및 지역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선도농(멘토)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다. 곡성군은 이같은 조건으로 지난 3월 신규 귀농(청년)인 대상자를 모집했고, 4월에는 선도농 12명, 귀농인 12명을 확정지었다. 연수생은 매일 최소 10일 이상 최대 20일 이하로 선도농가 영농 현장에 참여해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최대 80만원까지 총 5달 동안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도농은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 등을 전수하고 군으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휴대폰 GPS 기능 이용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곡성군이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제20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우수작품 시상

경북 최선희 작가 대통령상

구례군은 23일 국제대전으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제20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소규모로 열렸다. 올해는 9개국에서 476점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그 중 국외작품이 237점으로 국제전으로서의 높은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군은 이중 우수한 작품 총 173점을 시상하였다. 이번 대전에서 종합대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은 삼베 이불에 압화 소재를 부착해 만든 최선희 작가의 ‘자연’을 닮다 초충도 이불’이 차지했다. 이번 대전을 주최한 김순호 구례군



23일 열린 제20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에서 김순호 구례군수가 대통령상을 받은 최선희 작가의 ‘자연’을 닮다 초충도 이불’을 관람하고 있다. 수는 “압화대전이 20년 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압화대전이 20년을 넘어 30년, 100년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귀농귀촌학교, 수료 도시민 35% 화순 정착

화순군이 30명이 참여하는 제15기 화순군 귀농귀촌학교를 개강했다. 귀농귀촌학교는 도시민의 화순 귀농·귀촌에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군은 2014년부터 귀농·귀촌을 준

비하고 있는 도시민 이주 희망자와 화순군 이주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료생 502명을 배출했고, 수료생 중 379명이 도시민이었다. 도시민 중 132명(34.8%)이 화순

에 정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제15기 귀농귀촌학교는 22일 개강했다. 귀농귀촌학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하며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가 주관해 교육을 진행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